



순교자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5.5



스리랑카_부끄러움 없이 빛나는

20년 간 핍박을 견디며
불교 중심지에 교회들을 세워 온 오산의 부모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으로 떠날 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대부분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둡고 사악한 것처럼 대적하며 반응합니다.

이번 호에 실린 진실된 믿음의 간증을 읽으면서, 천 명의 불교도들이 폭력적으로 교회에 난입하여 성도들을 구타하고 우상 숭배를 위한 불당을 설치하면서도 스스로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2-3면). 마음이 완악하고 분별력이 어두워진 그들은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를 마땅히 제거해야 할 부끄럽고 해로운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존중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스리랑카 기독교인인 디네쉬 Dinesh와 찬드라Chandra는 세상의 멸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전부터 유령이 출몰하는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지역 사회에서 외면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들의 이야기를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보리수 그늘 아래서

이것은 20년 간 핍박을 견디며 스리랑카의 불교 중심지에 교회들을 세우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이다.

식료품 찬장도 텅텅 비고 음식을 살 돈도 다 떨어져 버린 날 오후, 차민다Chaminda와 자나니Janani 부부는 근처 해변을 거닐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해변가에서 큰 물고기 한 마리가 퍼덕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날 두 사람은 흥분한 자신들의 개를 쫓아내고선 3.5kg짜리 저녁 식사를 감사하며 먹었다. 지금까지 이들 부부는 지난 19년의 대적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은혜의 대표적인 실례로 그날 그 일을 떠올린다.

스리랑카에서도 급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불교도들이 대다수인 이 지역에서 기독교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대담한 믿음의 행보였고, 특히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젊은 부부, 차민다와 자나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조차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인도 남동쪽 해안에 위치한 섬나라 스리랑카에는 총인구의 10%인 소수 기독교인을 위한 굳건한 교회들과 신학 훈련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지만 인구의 70%가 불교도이고, 남부에는 압도적인 수의 불교도들이 기독교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며, 1988년에는 한 목사가 복음을 전하려다 순교한 곳도 있다. 차민다와 자나니가 교회를 개척하라는 부르심을 느낀 곳도 바로 이 지역이었다.

소유권 주장

차민다와 자나니,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두 사람의 집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교회로 쓰이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천 명에 달하는 군중들이 좁은 비포장 도로를 따라 공사 부지로 몰려들었다. 불교 승려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부끄러움을 없애야 한다고 부추겼기 때문이었다.

모여든 사람들은 폭도가 되어 건물 외벽과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 극단주의 불교도들은 교회가 들어설 땅에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보리수를 심어 영적 소유권을 주장하려 했다.

벽이 뚫리자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들은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교인 10명을 구타했고, 결국 차민다를 비롯한 3명은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그냥 도망치려고 했어요. 문을 닫으려 했는데,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는 안에까지 들어와 우리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때리면서 길 모퉁이에 있는 불상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부어 올랐습니다.” 차민다가 말했다.

폭도들은 건물의 벽과 문, 창문 뿐만 아니라 주차되어 있던 기독교인들의 차량까지 파손했다. 일부 폭도들이 성도들에게서 갈취한 돈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틈을 타, 차민다와 자나니를 포함한 교인들은 현장에서 도망쳤다.

기독교인들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불교 승려 하나가 건물에 들어가 불당을 꾸미고 보리수를 심었다. 보리수는 불교 문화에서 신성시되는 나무로, 자르거나 뿌리째 뽑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불교도들이 그 땅에 대한 영적 권위를 주장하는 행위였다.

재산에 해당하는 건물 공격에 대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서 차민다와 자나니는 당분간 그 건물과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했다. 또한 이들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가족들의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을 떠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마약 중독과 전과 이력을 지닌 노숙자들이 들어와 그 건물을 차지해 버렸다.

“법정 소송은 5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역을 계속했어요. 계속 기도하며 다른 곳을 임대해서 성경 공부 모임과 기도회를 진행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지요. 하지만 임대한 곳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정말 끊임없는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있는 동안 매일 밤 돌을 던지고, 차량을 파손하고, 집에 있는 화분들을 깨고 말이지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라고 자나니는 말했다.

한편 버려진 건물을 점유한 노숙자들의 행태에 지칠대로 지친 이웃들은 당국에 자주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기독교인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원래 주인인 차민다 측에 사태 해결을 요청해왔다. 차민다는 이에 동의하면서 오히려 그 불교도들이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여 그들을 놀라게 했다.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 건물에 들어오는 것조차 원치 않았던 지역 주민들이 ‘제발 여기 와서 지내주세요’라고 부탁한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차민다는 박해자들이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 스리랑카는 인구의 70%가 불교도이며,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한다.

차민다와 자나니는 소송을 해결한 지 20일 후 해당 건물로 집을 옮겼지만, 이웃들과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 일단은 임대한 집에서 예배를 지속했다.

두 사람의 노력으로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지만 2년 후인 2012년, 한 무리의 불교 승려들이 다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교회는 많은 수가 모이는 대신 여러 번, 다른 장소에서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모임을 갖기로 했다. 한번은 40명의 승려가 집에 난입하여 차민다를 폭행했는데, 그중 하나는 권총까지 들고 있었다. 이들은 차민다에게 누명을 씌워 허위 고발하려 했지만, 이는 경찰에 기각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청년 5명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왔고 마당에 있던 차민다와 교회 지도자 2명을 맞닥뜨렸다. 그들은 그날 있었던 다른 청년의 폭행 사건에 차민다를 거짓으로 연루시키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차민다는 또다시 심하게 구타당해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일주일일 채 지나지 않아 차민다는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출두 예정일 전날, 한 불교 승려가 확성기를 들고 마을을 돌면서 “목사는 악마다! 모여서 그 악마를 마을에서 쫓아내자!”라고 외쳤다.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외침에 응답하여 경찰서 주변에 모여들었고, 차민다에게 폭력을 가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고위 경찰관이 차민다에게 연락해 경찰서에 오지 말라고 말해주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차민다에 관한 혐의 역시 취하되었다.

성장하는 가족, 성장하는 교회

“힘들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3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차민다가 말했다. 성도들은 한때 분쟁이 일었던 그 부지에 교회 건물을 세웠고, 2024년에는 지역 내에 세 개 교회를 더 개척했다.

“이 마을 사람 모두가 교회를 알아요. 핍박 때문에 우리가 유명해졌거든요. 핍박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은 우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니까요”라고 웃으며 차민다가 말했다.

이 지역에는 여전히 반기독교 정서가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시에서는 교회 쪽 도로 포장을 허가해주지 않으며, 지역 불교도들은 아직도 차민다의 집에 돌을 던지곤 한다. 하지만 차민다는 좋은 평판 덕분에 뜻밖의 제안을 받기도 했다. 지역 위원회의 대표로 활동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차민다 가족의 집이자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자리한 그 땅에는 첫 공격 이후 심겨진 보리수가 여전히 자라고 있지만, 그곳의 영적 소유권은 분명하다. 그곳은 차민다 가족의 소유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선포하기 위해 드러진 땅이다.



▲ 아들 오산(Oshan)과 함께 집에서 식사 중인 차민다와 자나니 부부. 이 집은 2005년 공격으로 심하게 파손되었고, 당시 차민다와 두 기독교인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2025년 5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1	2
				오만 기독교 제한국인 오만에서 비밀리에 전도/양육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4	5 어린이날	6	7	8	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국내 난민을 돕고 있는 최전방 사역자들을 위해	중국 왕이 목사와 푸쉬엔취엔 같은 투옥된 중국 기독교인들을 위해	이스라엘 극단주의 무슬림의 통제 지역에서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말씀을 읽도록	소말리아 이슬람교에 환멸을 느낀 많은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지부티 많은 무슬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도록	
11	12	13	14	15	16
인도네시아 핍박받는 시골 지역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기회를 얻도록	베냉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두운 베냉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부르키나파소 자립할 길이 막막한 기독교인 과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방글라데시 믿음 때문에 가족에게 거부당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도록	미얀마 미얀마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버마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18	19	20	21	22	23
우즈베키스탄 예수님을 적대하는 공산체제 아래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이 믿음을 갖도록	수단 이슬람화로 점점 힘든 상황에서도 수단 성도들이 성경을 구할 수 있도록	모로코 당국자들에게 종종 심문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필리핀 복음 전도 활동 때문에 살해된 성도와 목회자들의 가족을 위해	이라크 전쟁과 불안정 속에서도 국내에 남아 있는 약 30만 명의 성도를 위해	
25	26	27	28	29	30
인도 마을에서 쫓겨난 헤마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격려하시기를	차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성경적인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에티오피아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활동 지역에서 사역하는 데레제 같은 목사들을 위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극단주의 무슬림의 공격에 성경이 훼손됐지만, 새 성경을 받을 수 있도록	소말리아 하르게이사, 키스마요, 지그지가 지역에 복음이 더 전해질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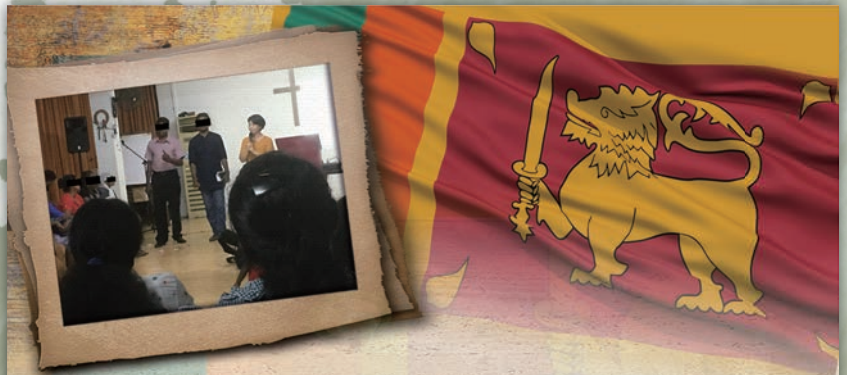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RIDAY	SATURDAY
2	3
 탄자니아 선교사들이 스와힐리 해안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베트남 몽족 같은 소수 민족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전해지도록
9	10
 말리 극단주의 무슬림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예배하는 담대한 성도들을 위해	 토고 믿음 때문에 주술사들에게 구타당한 아브라함을 위해
16	17
 모로코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의 영으로 연합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란 97% 무슬림 인구 중 이슬람교에 환멸을 느낀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23	24
 튀르키예 시리아, 이란, 이라크 난민 약 4백만 명을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베냉 현재 기독교인은 30% 이지만 더 많은 베냉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30	31
 에티오피아 모든 기독교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도록	 아제르바이잔 어린이 성경을 받은 어린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스리랑카 목회자 부부 400명에게 필요한 ‘핍박’에 관한 성경 훈련,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목회자들이 구타를 당하고, 거짓 혐의로 체포되며, 교회가 폐쇄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핍박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목회자들이 사역을 떠나고, 가족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교회가 문을 닫거나, 가해진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려는 결과가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순교자의 소리는 핍박에 직면한 이들 목회자와 사모들이 성경적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집중 훈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작년 이 훈련에 참석했던 한 스리랑카 목회자는 “요즘에는 강단이나 유튜브에서도 십자가나 고난에 대한 설교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제 이 내용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결단을 하며 돌아갑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최대 400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이 중요한 훈련에 참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5만 원으로는 목회자 1명을,
75만 원으로는 목회자 5명을,
150만 원으로는 목회자 10명을,
이 귀한 훈련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시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5월 31일까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스리랑카’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스리랑카’라고 기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scan me!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

이것은 스리랑카의 한 농장 노동자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경험하면서 함께 겪게 된 핍박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금도 반다Banda의 손에는 분홍빛으로 변한 흉터가 몇 개 있는데, 이는 2022년까지 그의 온몸을 피폐하게 만들던 피부병의 마지막 흔적이다.

“흉터가 이렇게 작지 않았어요. 입 안이며 얼굴까지 번지지 않은 데가 없었고, 통증도 심했답니다.” 손을 보여주며 반다가 말했다.

발진과 염증으로 상처들이 벌어지고 가려움증도 극심해지면서 그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혼자서는 음식을 잡고 먹을 수도 없어서 아내인 라제스와리Rajeswary가 손으로 먹여주어야 했다. 옷 입기나 목욕 같은 기본적인 일상까지 반다에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반다는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Colombo에 있는 피부과들을 다녔지만 별다른 치료법을 찾지 못했다. 또한 평소에 시주를 해오던 불교 사원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례식에서 기독교인 친척을 만났고 그는 반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주었다. 그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라며 반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반다의 가족 3대는 모두 함께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예배가 끝나자 대화를 나누던 목사가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었다. “불에

타는 것 같던 고통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처음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반다가 말했다.

몸은 점차 치유되어갔고, 반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 이 새로운 믿음을 통해,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성경을 읽으면서 반다는 자신의 영혼 또한 치유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반다의 가족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다고 스스로 결정했다. 지역 불교 사원의 한 승려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그는 곧바로 이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 승려는 이 결정을 일종의 거래로 여기는 듯했다. “그 신이 당신을 고쳐주었으니, 일단 그 신을 섬겨야겠지요.” 그는 이 기독교 신을 향한 반다 가족의 신봉이 일시적인 것으로 짐작했지만, 반다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목사는 매주 반다의 가족을 방문해 기독교인의 삶에 관해 가르쳤다. 또한 반다 가족의 삶을 변화시킨 복음을 주변에도 전하라고 격려했다. 반다와 라제스와리는 그 격려를 마음에 새기고서 그가 추천한 단기 선교 훈련 캠프에 참석하기도 했다.

훈련을 마친 반다는 차(茶) 농장이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농장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매우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받은 것을 그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게 정말로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어요”라고 반다는 말했다.

반다와 라제스와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70명이 넘는 사람이 이들 부부의 집에 모여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 모임에는 그들의 목사도 함께 참석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반다 부부가 집에서 <예수JESUS> 영화를 상영하려 계획 중이던 어느 날, 농장의 땅 주인이 이를 금지하면서 목사가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다. 심지어 두 사람의 집은 그의 땅에 속해 있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스리랑카 법에서 기독교 활동 자체는 허용이 되지만, 반다가 사는 섬의 남부 지역에서는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교도들이 이렇게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일이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목사가 오지 못해도 사역을 이어나가기로 결심한 반다와 라제스와리는 계속해서 집에서 성경 공부를 모임을 열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예배를 드리기 위해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들의 집에 모여들자 땅 주인은 사원의 승려에게 이를 알렸다. 그러자 승려와 지역 경찰이 반다와 라제스와리의 집에 찾아왔고, 기독교 집회를 이유로 두 사람에게 신체적인 응징을 가했다.

반다는 “그 승려는 집에서 기독교식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건 불법이라면서 우리 부부를 정말 가혹하게 대했어요. 나는 한때 그 절의 중요한 후원자였고, 그 승려는 그런 후원자를 잃고 싶지 않았

◀ 계피를 생산해 가족을 부양하고 사역을 이어가는 반다





◀ 반다와 라제스와리는 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라고 가르친다.

던 거죠. 그 시점에 소동이 벌어졌고, 경찰은 우리에게 더는 마을에서 이런 모임을 갖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했다. 예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며 흩어졌지만, 몇몇 기독교인들은 남아서 승려와 경찰들에게 간증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목사는 더 이상 마을에 들어와 예배를 인도할 수는 없었지만 반다를 방문하여 그에게 사역 훈련을 시킬 수는 있었다. 반다 역시 자신의 집에 모인 새신자들을 지속해서 가르쳤다. 7개월 후, 32명의 새신자가 이 마을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땅 주인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며 개인적으로 더욱 반다를 압박했다. 반다의 큰아들이 대학 진학을 앞둔 시점에 아무 언질도 없이 반다를 대체할 감독자를 고용해 그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반다와

라제스와리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물려받았던 귀중품과 보석 등을 팔아보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반다가 농장 노동자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던 그때, 목사는 순교자의 소리 최전방 사역자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계기로 반다는 전 세계 그리스도 지체들의 도움으로 해당 지역의 귀한 계피와 향신료를 가공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다. 한 기독교인 친구는 반다가 이를 작은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지원해주었다. 현재 반다는 이 사업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

반다는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모임 장소와 시간을 바꾸었고, 낮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역은 마을 주민들 다수에게 축복이 되었다. 최근 이 지역에 사는 노동자들이 심각한 홍수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반다와 라제스와리는 피해 주민들이 집을 청소하고 재건하는 동안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반다는 향신료 사업을 통해 이렇게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자금을 얻고 있다.

반다가 교회에서 첫 번째로 가르쳤던 것은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것은 반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이야기였다. “나와 삭개오 사이에 닮은 점이 많아요. 그 이야기가 내 삶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배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전하도록 격려했다.

한때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우상 숭배에 얽매인 농장 노동자였던 그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신 분을 섬기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 일이 내게 기쁨을 가져다주지요.” 반다가 말했다.



▲ 반다는 누구보다 차를 재배하는 농장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이 필요함을 깨닫고 복음을 전했다.

2025 하반기 순교자의 소리 지하신학교 3기생을 모집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온전하고 신실한 6가지 신앙고백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하고 신실하게 고백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도들이 전했던 이 6가지 신앙고백을 말씀을 통해 깊이 배움으로써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 그 이상의 온전한 의미로 이해하고 그분의 재림을 향한 소망을 꿈꿔야 합니다!

- **6개월 과정:**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월 1회 (6/14, 7/12, 8/23, 9/13, 10/18, 11/15)
- **훈련비:** 400,000원 (6개월 과정, 식사 제공)
- **강사:**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현숙 폴리 대표
- **장소:** 순교자의 소리 서울 사무실 (구체적인 사무실 정보는 등록 시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010-3151-2065 / 02-2065-0703

※ 지하신학교는 목회자와 성도, 모든 기독교인이 신구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훈련합니다. (별도의 학위는 없습니다.)

일정 및 강의 내용



신 / 간 / 소 / 개



「담대한 어린이 성경학교」 -북한/중국/나이지리아/인도/이집트 편-

5개 국가(북한, 중국, 이집트, 인도, 나이지리아)의 핍박받는 형제자매를 통해 한국의 다음 세대가 고난 중에도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는 양육 교재

교사용 12,000원 / 어린이용 7,000원



「역경의 길 위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이려면 누구나 핍박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

10,000원

스리랑카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핍박 상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기도합니다.

스리랑카
광고전단을
중단하러!



나원 속의 박해
: 스리랑카



순교자의 영성을 전하는 한국 VOM 도서

신실한 증인이 되는 법을 제시하는 책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지하교회를 심으라』
『지하교회로 살라』

리처드 웹브란트/에릭 폴리
각 10,000원

동성애를 비롯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을 웹브란트와 폴리 목사가 영적으로 함께 파헤치면서 한국교회가 다가오는 핍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예언적인 책

한국 기독교인의 영성회복을 위한 책



「새 하나님,
새 민족」
15,000원



「온전한 헌신」
1,2
각 10,000원



「영웅의 여정」
10,000원



「믿음의 세대들」
10,000원

존 로스 성경 & 조선어 성경



『조선어 스테디 성경』
일반 25,000원
큰글자 30,000원



『조선어 스테디 성경』
(창세기/신약)
10,000원



21세기 존로스독자판
『누가복음전서』
10,000원

리처드 웹브란트 목사의 저서 및 전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10,000원



「마르크스와
사탄」
10,000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0,000원



「웹브란트」
15,000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5,000원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여행자 - 복음 위해
사선을 넘은 자들」
10,000원



「이란
- 희망과의 조우」
10,000원



「에리트레아
- 갈혀버린 민족」
10,000원



「공산주의는
죽지 않았다」
10매 1세트 10,000원

사무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숭례로 26 지층
문의 02-2065-0703 (화-토 9:00-5:00)

www.vomkorea.com/donation
후원계좌: 국민 463501-01-243303

도서 구매는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국민은행 463501-01-244988